

## 프로의 눈물



박 형 군

사 원시절 출근하여 프린터실에 가보니 구석에서 여직원 한명이 COMPILE LIST를 붙잡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KEY PUNCHER로 입사하여 PROGRAMMER로 변신하기 위하여 PROGRAM을 개발해 보겠다고 자청하였던 여직원이었다. 야심 차게 데뷔작을 만드는 작업을 착수하였는데, ERROR가 너무나 COMPILOR가 COMPILE거부 MESSAGE를 보냈고, 밤새 DEBUGGING을 하고 또 해보아도 없어지지 않은채 날이 밝았으니, 아침에 자랑스럽게 REPORT를 제출해 보겠다는 꿈은 산산조

---

약력 : • 80~86 동부건설 전산부 • 86~92 대웅릴리제약 경영정보실 • 92~96 현대약품공업주식회사 기획조정실 • 현재 주식회사 콤팩시스템 기획이사

각나고 답답하고 분하고(?) 창피하기도 해서 이런저런 감정이 뒤범  
벽된채 울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그 여직원은 일에 대한 끼와 도전정신, 그리고 열의에 감동  
한 총각직원들의 도움으로 프로그래밍 설계와 작성을 배우고 익혀,  
훌륭한 프로그래머로 성장하여 많은 업무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결  
혼후 에도 프리랜서로 JOB을 가지고 개발업무를 계속하는 진정한  
프로로서 자기의 업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요즘 새로운 정보시스템 환경변화에 쫓지 못하여 고민하거나 변  
화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여직원이 가끔 생각나곤 한다. 개발환경이 참으로 급격히 그리고 많  
이도 바뀌어, 어제까지 힘들게 배워 사용했던 기술과 시스템을 오늘  
버리고 새로운 이론과 기술을 익히지 않으면 따라가기 힘든 환경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정보시스템을 구현하면서 사용자들에게 그  
들의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과거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변화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지만, 진작 우리 자신은 한번 배운 이론과 기술을 과  
감히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 같다.

새로운 개발환경에 대한 신기술을 습득하여 구현하는  
KNOWHOW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문제에 대한  
해결력이라고 생각한다. 조직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문제 해결력  
없는 기술력은 상품성 없는 제품과도 같다. 문제해결력은 단시간의  
기술연수 에서 얻을수 없는, 오랜기간동안의 정보시스템 적용업무의

지식과 이행경험 그리고 사용자 들에 대한 CONSULTING경험과 능력에서 구할수 있는 것이며, 그 바탕위에 신기술이 적용되어야만 성공적인 정보 시스템이 구현 될 수 있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한 적용업무에 대한 오랜 경험으로 깊은 실무지식과 다양한 응용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정보시스템을 구현하며 조직의 문제해결을 기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사례들을 보았다. 조직 나아가 국가적으로 투자하며 쌓은 기술력을 사장시키지 않고 쌓어나가 결국 조직의 발전을 기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엄청난 투자로 쌓은 개인의 기술력이 결집되지 않고 분산되어 버리고 기술인력들이 조로화 하는 경향이 심한 느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전 산업체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PACKAGE 하나 제대로 적용시킬 수 없는 실정이다. 기반조성을 위한 거래제도/절차/양식 등에 대한 표준이 제정되거나 시행되지 않는 환경이 제일 크겠으나, 정보시스템 인력들이 쌓은 경험들을 사장시키지 않고 계속 신 기술을 접목시켜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 또한 크다고 하겠다.

정보통신과 정보처리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시점이고 더욱이 우리나라 정보화역사에 비해 전문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고급 기술인력에 대한 국가의 장기적 양성계획이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고, 그러한 중요한 KNOWHOW를 지닌 정보처리종사자들이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신기술은 SUTDY하고 적용하여 우

리나라 정보시스템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가면 국가경쟁력이 더욱 강화될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그러나 미래를 열어나가는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두려워 하지 말고 앞서 받아들여 도전해보는 개척정신이 정보시스템 종사자들에게 더욱 절실히 지고 있고, 남보다 앞서 정보시스템을 시작한 사람들이 그러한 정신으로 우리나라 정보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사회를 위해 봉사하여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정보산업계의 KONWHOW가 계속 연결되어 발전되지 못하고 단절되어 진정한 정보산업의 역사가 짧아지는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름답다. 예술가가 식음도 전 폐하고 수염깎을 시간도 없이 몰두하여 작품을 창조하는 모습을 볼 때, 무대에서 연극배우가 자기자신은 버리고 오직 극중인물로 변하여 땀과 눈물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연기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벅찬 감동을 느끼고 열렬한 박수와 환호를 아낌없이 보낸다.

전산인도 정보처리업계의 무대에서 미처 마음껏 발산하고 뛰어 놀아야 한다.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우리의 관객을 향하여, 그 관객들이 개발한 작품에 대해 그리고 개발자의 업무에 대한 애정과 집착에 대해 감동하고 환호를 보낼 때 우리는 진정한 프로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런 생각이 들때면 처음 입사하여 개인의 변신을 위해 도전하고 혼자 부딪치는 장애에 울며 또 도전했던 프로 여직원의 눈물이 더욱 간절해 진다.